

출판가 인도·티벳 '열풍'

박완서씨 '모독' 등 순례기 5권 잇달아 출간

"부처님은 사람들이 욕심없이 사는 땅, 나의 관광행위가 신성한 땅에 대한 모독은 아닐까."

소설가 박완서씨가 최근 펴낸 <모독(冒瀆)>(화고재)에서 티벳의 순박한 자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티벳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면서 한 말이다.

수년전부터 서점가에 인도관련 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독>을 비롯한 인도·티벳 관련서 5권이 잇달아 출간돼 다시 한번 인도·티벳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화제의 책들은 <모독>을 포함한 <히말라야의 순례자>(한길사)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살림) <인도에서 온 편지>(대흥기획) <방랑보다 환혼한 인생은 없다>(초당) 등.

박완서씨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사유가 이국의 풍물속에 녹아있는 <모독>은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순결한 땅 티벳을 생생하고 풍부한 사진과 함께 문학으로 그린 티벳·네팔 여행기다. 정복되지 않은 순연한 사람들의 미소와 정갈한 삶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모독>은 현대문명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갖게 한다.

<히말라야의 순례자>와 <방랑보다 환혼한 인생은 없다>는 히말라야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독특한 종교와 정신세계를 탐색한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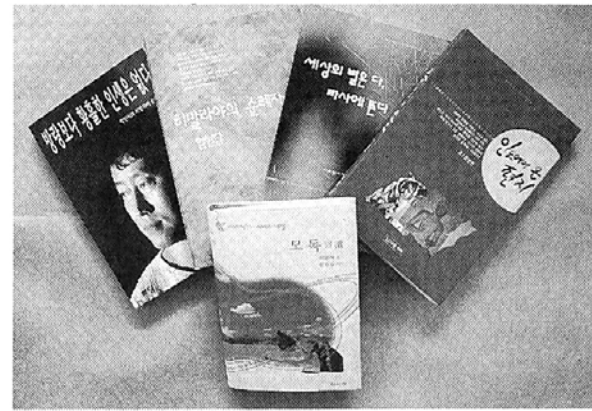
<...순례자>는 지난해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를 펴내는 등 4권의 인도기행서를 펴낸 임현

담씨(산본 진담방사선과의원장)의 최신작. 눈물겨운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정신만은 풍요로운 히말라야 주변 국가 사람들의 생활상과 반뇌를 털어버려라 정진하는 다양한 종

부처님 자취따라 '구도의 열정' 재충전 히말라야 주변국 순박한 생활상 소개

교의 수행자들을 통해 구도의 열정을 다져나가는 순례기다. 작가 박인식의 <방랑보다...>는 히말라야 산맥 언저리에 사는 순례민족의 지난(至難)한 삶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살펴 본 기행문이다.

지난 90년 <인도기행>으로 문단에 '인도기행 불'을 일으켰던 작가 강석경씨의 <세상의 별은 다 라사



에 뜬다)는 7년만의 장편소설이자 인도체험의 완결판이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일상의 폭력에 지친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향해 떠나는가를 아름답게 그려냈다. 작품 곳곳에 새겨넣은 간디, 타고르의 시구(詩句)들은 인도의 깊은 정신세계를 전해준다.

고척중학교 교사인 김남선씨가 쓴 <인도에서 온 편지>는 불교의 8대성지 등을 둘러본 인도불적 순례기. 불제자로서 불적을 더듬어가며, 살아있는 부처님 자취를 시공을 초월해 만나는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불심시심 <77>

다람쥐 옷섭에 오르다

幾城千古寺 (기허천고사)	몇 번이나 폐허된 천고의 절
寂寂掩柴扉 (적막암시비)	쓸쓸히 사립문도 닫혔네
庭草知僧少 (정초지승소)	뜰에는 풀, 스님 없음을 알리고
經苔認舊橋 (경태인객의)	이끼 낀 길, 나그네 드물기 때문
鴉偷園瓜盡 (아투원과진)	채마밭 오이 까마귀가 다 훔치고
鼠穴土蟻依 (사혈토양 의)	쥐는 토담에 구멍 뚫어 숨어지내다
庵主忘機坐 (암주망기좌)	기미머지 잊고 앉은 주지스님에게
林鷓假上衣 (림제假上衣)	숲의 다람쥐 옷섭 올라 재롱하네 (임오가상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성대사의 시를 더 감상하기로 하자. 이 시는 '제청평사(題淸平寺)'라 한 시이다. 그러나 정평사에서 쓴 시이다. 웅장했던 옛날 자취는 없고 황폐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다. 이 시는 그러한 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초라함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순수함을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더욱 다정함을 느끼게 된다. 쓸쓸히 사립문이 닫혀 있다. 오가는 나그네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내고 있는 스님조차도 귀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길에는 이끼가 돋았으니, 오가는 손님도 없는 것이다. 한적함이 지나쳐 적막을 느끼게 된다. 앞에서 표현된 적막이란 말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침입을 막는 경계의 설정이 아니라, 오히려 쥐나 족제비의 안식처가 되었다. 속세의 삶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시문학의 표현이 원래 일상성의 초탈이라 한다면, 이런 시어들에서 느끼는 일상성의 이질화는 바로 스님들의 문학적 수완의 우수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시도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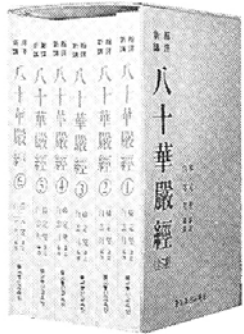
사람과 자연은 어차피 대립적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 시에서는 대립적 마주봄이 아니라 폐사를 매개로 하여 격의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옛으로 알 수 있는가. 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길에는 이끼가 돋았으니, 오가는 손님도 없는 것이다. 한적함이 지나쳐 적막을 느끼게 된다. 앞에서 표현된 적막이란 말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사람과 자연은 어차피 대립적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 시에서는 대립적 마주봄이 아니라 폐사를 매개로 하여 격의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옛으로 알 수 있는가. 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길에는 이끼가 돋았으니, 오가는 손님도 없는 것이다. 한적함이 지나쳐 적막을 느끼게 된다. 앞에서 표현된 적막이란 말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채마밭의 채소는 사람의 음식이 되기 이전에 신새들의 먹이가 되는 회사의 재배, 사람의 염력으로 쌓은 토담은 도적이냐 외인의

침입을 막는 경계의 설정이 아니라, 오히려 쥐나 족제비의 안식처가 되었다. 속세의 삶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시문학의 표현이 원래 일상성의 초탈이라 한다면, 이런 시어들에서 느끼는 일상성의 이질화는 바로 스님들의 문학적 수완의 우수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시도 예외가 아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제1권 1권에서는 <화엄경> 대의 총론을 통해 인도 중국 한국의 '화엄교사(華嚴敎史)'를 비롯 <화엄경>의 내용과 사상을 개괄적으로 해설했으며, 제6권 결어편에서는 '용수보살의 약한계(略難局)',

"영산재 짓소리 중심 의식이었다"

법현스님 밝혀... 하루로 축소진행 영향 훗소리화

과거 영산재는 짓소리 중심으로 의식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영산재가 3일에서 1일로 축소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영산재가 훗소리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밝힌 논문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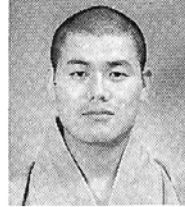
지소리란 가락이 길고 규모가 크고 장엄하며 어부(魚夫) 중심으로 대중이 합창하는, 한국이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연주되는 법과의 한 종류.

지소리가 영산재에서 어떤 의식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처음으로 밝힌 이 논문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김법현 스님(동국대 강사)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논문집에 발표한 '지소리 쓰임연구-영산재를 중심으로'.

어장들의 구전에 의하면 해방전 후 지소리는 73곡이 정리되었다고

하나 현재 영산재에서 쓰이는 지소리는 인성(弓聲)등 모두 13곡.

과거에는 옹호계 산화락 등 모두 35곡이 불리워졌으나 현재 영산재에서 전승되어지는 지소리는 인성(弓聲), 거불, 관옥계, 목욕진언, 거령산(擧靈山), 영산지심, 삼귀두겁, 육거불, 삼남대, 특사가지(特賜加持), 구원검중(求願劍中)이라는 지심귀명례, 오관계, 석영산 등이다. 이들 곡은 시련, 관옥, 패불이운, 상단 권공, 식당작법 의식에서 불리워진다. 시련과 신중작법, 패불이운시 사용되는 옹호계는 반지소리로 불



◇법현스님

리워지고 있고, 영축계 진령계 등 19곡은 훗소리로 불리워진다.

법현스님은 "따라서 반지소리 3곡과 현재 영산재의식에서 사용되는 19곡 훗소리가 전에는 전부 지소리로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경숙 기자

"화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정섭법사, 교재용 '축역신강 80화엄경' 펴내

<화엄경> 이해의 길잡이가 되는 강의교재를 축소판 <화엄경> 번역·해설서가 나왔다.

한정섭법사(나란다삼장불학원장·사진)가 최근 펴낸 <축역신강(縮譯新綱) 80화엄경>(전 6권·불교통신교육원 펴)은 80권본 <화엄경>을 6권으로 축소 번역, 해설과 강의를 곁들여 방대한 <화엄경>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해설서다.

지난해 출간된 무비스님의 <한글 화엄경>(전 10권·민족사 펴)에 이은 또하나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 책은 누구나 간편한 마음으로 <화엄경> 공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원문에 반복된 말이나 수식어를 줄여서 정리하고 제목을 붙여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함으로써 <화엄경>에 갖는 심오한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한 점이 돋보인다.

'청량국사의 현담(玄談)', '의상대사의 법성계(法性界)'를 실어 <화엄경>의 대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신국판 각 3백80쪽, 전6권 4천8천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사인물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풀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생환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5	도솔천에서 만났다	장 순 용	세 계 사
6	금강경대강좌	이 재 열	여시아문
7	무소유	법 정	법 우 사
8	禪 이야기	일 지	운 주 사
9	유식입문	이 지 수	시 공 사
10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구입문의: (02)737-0695

23인의 '한지작품전'

28일까지 워커힐미술관... "조형언어 감상기회"

전통종이인 한지와 작가 스스로 개발한 수공종이를 재료로 이용해 독특한 조형언어를 구축하고 있는 23인의 한지작품전이 오는 28일까지 서울 워커힐미술관(02-450-4666)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한지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한지-그 이후'전은 예로부터 우리 생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던 한지의 용도와 그 정신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지가 갖고 있는 독특한 한국적인 맛과 멋을 현대미술속에서 살려내려는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정신을 볼 수 있는 기회로 한지작업의 현주소를 낱낱이 살필 수 있는 자리이다.

참여작가는 문복철 박철 류재구 이우현 함섭 한영섭 윤미란 씨 등으로 이우현씨는 작은 한지를 붙여 전체적으로 둥근 화면을 만든 '만다라'를, 이진희씨는 한지위에 컴퓨터 디스켓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 정보전달 수단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원시세계에서 미래로'를 선보인다.

이상은씨는 빨강 노랑 초록 등 원색의 한지를 다양하게 붙여 마치 설치미술을 연상시키는 '기억의 끈'을, 한영섭씨는 거칠거칠한 다짐을 바위에 올려놓고 수숫대에 먹칠을 찍어 형상을 나타낸 '관계'를 출품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문화소식

문화재발굴 법인 추진

문화재관리국은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매장문화재발굴 전문법인 설립, 문화재보호법 개정,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도(古都)정비 및 문화재 보존에 예산을 대거 투입키로 하는 한편 '3·1운동 순국유적 기념관' 확충 및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물 전시관 건립, 경북공 흥례문 복원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봉준씨 수필집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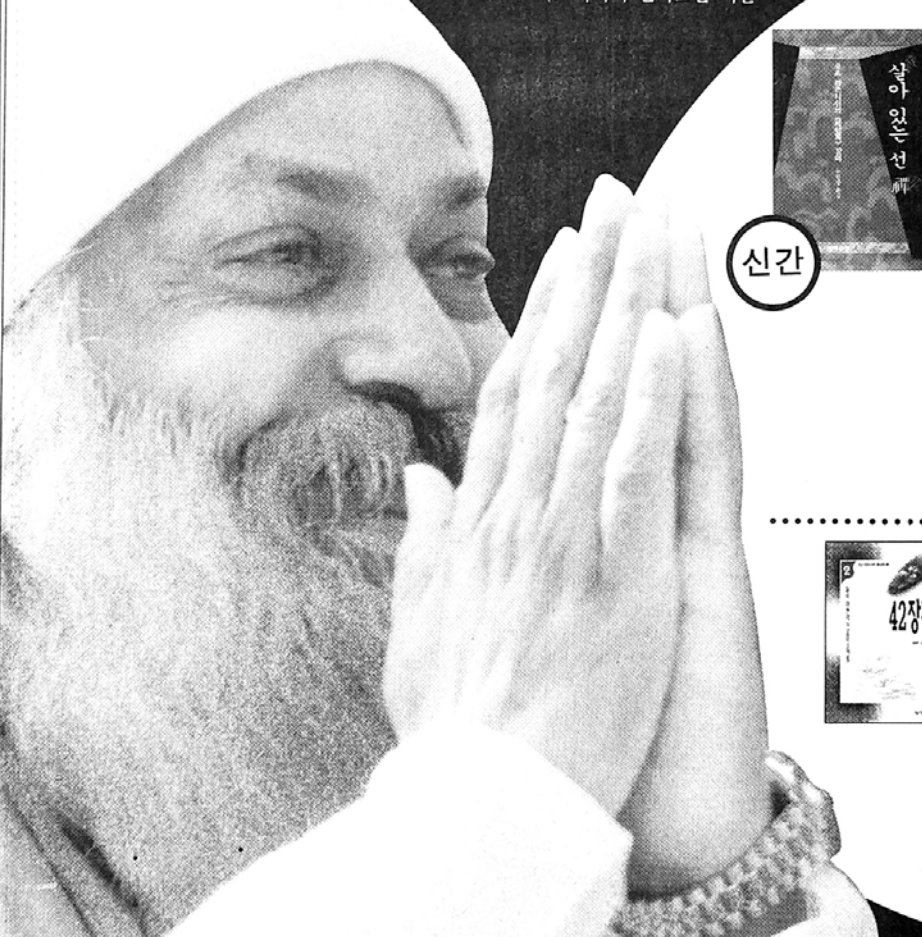
볼타 한국화가 김봉준씨(43)가 20년의 화업에서 추린 그림과 강의를 바탕 산골에서의 단상들을 모은 수필집 <산골화실에서 띄우

는 편지-붓으로 그린 산그리며 물소리)를 펴냈다(강 권). 온갖 자연의 모습과 산골에서 배우고 되돌아보는 생활과 창작에 얽힌 이야기, 미술관 등을 담았다. 한편 김씨는 오는 23일까지 관훈동 사비나갤러리(736-4371)에서 '대보름, 그 신명의 이미지전'을 갖고 있다.

합창·무용등 단원모집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합창단, 무용단, 유니어 오케스트라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초능력 오디션을 거쳐 선발되는 단원은 정기발표회 유럽순회연주회 등 각종 예술 행사에 동참하게 된다. 모집기간 3월 1일까지. (02)725-7527

오쇼 라즈니쉬의 진리로운 책들...



살아 있는 선(禪)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일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담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42장경

붓디의 42장경을 황목이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농담,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세1권 삶의 해빙에서 모은 조각들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40쪽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숙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